

책으로 보여주는 韓國新文學 백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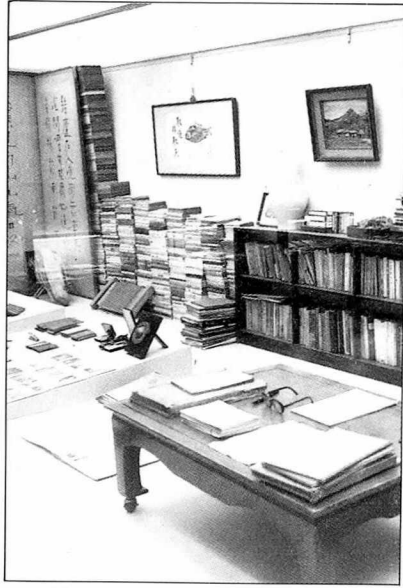
삼성출판박물관 개관2주년 기념 '한국신문학특별기획전'

교과서나 문예사전에서 낡은 사진으로만 보던 우리 근대문학기의 작품집과 문학사에 기록된 유명문인들의 친필원고를 비롯한 손때 묻은 유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일은 분명 일종의 설레임을 동반한다. 삼성출판사 부설 삼성출판박물관(관장 김중규)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한국 新文學 특별기획전'은 바로 그런 설레임과 함께 "어느 분야에서 서건 기록과 보존이 부족한 우리 사회"라는 걱정을 말끔히 씻어준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 4개월간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문학사적 출판사적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다시말해 근대문학 1백여년의 역사를 문학사적으로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당시의 판본을 전시하고 있어 출판의 변천사를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최해 약 2만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성과를 올렸던 '교과서 특별기획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신문학 기획전'에 진열된 자료도서는 총 4천5백여권에 이른다. 이 책들은 모두가 이 박물관 소장도서로, 대개의 전시회가 주변의 자료협조를 이뤄지는 데 반해 이 전시회는 소장자료만으로 준비되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의의가 있다.

크게 나눠 시집(1,800권), 소설(1,500권), 수필과 평론 등의 산문(700권), 그리고 전집(450권)이 약 80여평의 전시실에 진열돼 있는데, 비단 책만이 아니라 그 책들의 저자인 문인들의 체취가 그대로 밴 친필원고와 서화·도자기 등 예술작품 2백여점도 선보이고 있어,



한국신문학특별기획전의 학춘 이범선 코너.

당시 문인들의 폭넓은 예술세계를 엿보게 한다. 특히 '오발탄'의 작가로 잘 알려진 학춘 이범선씨의 장서와 유품 2천7백여점은 따로이 전시실 한켠을 채우고 있기도.

전시된 도서 가운데 우선 시집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육사의 「陸史詩集」(1946, 서울출판사)과 윌북작가 정지용의 「白鹿潭」(1946, 백양당). 이밖에도 주요한의 시집 「아름다운 새벽」(1924, 조선문단사), 「백조」 동인이었던 노자영의 「處女の花環」(1925, 장문당서점) 등을 비롯해 「靑馬詩抄」(1939, 청색지사) 「님의 沈黙」(1934, 한성도서) 「永郎詩集」(1935, 시문학사) 「진달래꽃」(1954, 송문사)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1955, 정음사) 등이 있다. 근대문학기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꼽히는 김소월의 시집과 육필원고,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안서 김억의 책들은 한

데 모아놓았는데, 김억의 육필원고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

한편 1924년 홍문당이 펴낸 이광수의 「無情」이나 최초의 신소설로 일컬어지는 이인직의 「銀世界」(1908, 동문사), 김동인의 대표작 「감자」(1935, 한성도서), 나도향의 「幻戲」(1923, 조선도서) 등 당시 우리문학 거장들의 작품집이 소설분야의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시집들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책은 역시 「滿朝鮮詩人集」이다. 1942년 간도의 예문당에서 출판한 이 시집은 1940년대 재만한국인 문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제시대인 당시 간도로 피신한 문인들의 작품세계를 전해주는 희귀본. 상당히 조직적인 문학활동을 전개한 김조규·김달진 등 12명의 시가 수록된 이 시집의 자료적 가치는 대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필이나 평론과 같은 산문이 실린 책들 또한 적지 않게 전시돼 있는데, 그 중에는 이광수의 「朝鮮의 現在와 將來」(1922, 홍문당), 「金剛山遊記」(1924, 시문사)와 최남선의 「尋春巡禮」(1926, 백운사) 등이 눈에 띄며, 이외에 회곡·일기·서간 등도 있다. 최남선이 펴낸 「少年」(1908, 신문관), 「東光」(1924) 등의 잡지도 전시돼 있다.

이번 '신문학 특별기획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의 수많은 판본들과 함께 친필원고와 같은 작가의 유품들. 「임거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가 만해 한용운에게 책 한권을 구해달라고 보낸 서한이라든가 만해가 직접 교정을 본 교정본, 그리고 시 「고향의 봄」을 이원수가 손수 쓴 두폭 가리개, 김동리의 합죽선, 한무숙의 산

수화, 이상의 파이프, 가람 이병기의 사범학교 시절 미술 시험지 등은 문학 외적인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5일장에서 무게를 달아 팔던 사랑방 이야기의 대본인 구소설·고대소설책들도 진열돼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책표지를 만들기 위해 그려진 표지화도 모아져 있어, '북디자인'의 역사를 가늠케 한다.

전시실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학춘書室'은 그의 일기·창작노트·뉘시도구·원고·안경·인장 등이 진열돼 마치 서재를 그대로 옮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꾸며져 이색적이다.

지난 90년 6월29일 개관한 삼성출판박물관은 신라·고려시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9만5천여권의 희귀도서를 비롯해 고향자, 인쇄기기·문방사우 등 출판관련 자료들이 소장돼 있고, 1층 상설전시실에는 「무구정광다라니경」 복제본을 위시해 국보급 유품 10여점 등 소장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시실 이외에도 세미나실·영상관람실·민속공연장 등의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문의전화 679-4597)

— 최태원 기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야-떠나자! 자연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

모험도감

캠핑 생활의 친절한 선생님!

자연을 친구 삼아 즐기는 짜릿하고 신나는 캠핑 생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만 하는 우리들. 야외생활의 길잡이, 「모험도감」이 여러분을 도와 줍니다.

- 2도 인쇄/340쪽/값 4,800원



◆ 모험도감에 실린 주요 내용

- 걷는다: 신발을 고른다, 걷는법, 옷차림, 배낭꾸리기.
- 먹는다: 우선 집에서 요리를 해보자, 밥 짓기, 식칼 사용법.
- 잔다: 노숙을 해보자, 잘 자려면, 텐트치는 법.
- 만들며 논다: 나무그릇 만들기, 해먹치기, 목공예품 만들기.
- 동물과 식물을 만나다: 가까운 곳의 나무 관찰 뉴시를 하자.
- 위험에 대처한다: 길을 잃었을 때, 벼락을 피하는 법.

◆ 자연도감에 실린 주요 내용

- 자연을 관찰하는 방법, 가까이에 있는 곤충
- 집 가까이에 있는 포유동물 철새의 이동
- 개구리의 사는 모습, 강 하류에 사는 생물.



자연도감

동식물은 다정한 내 친구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나는 수많은 동식물은 다정한 친구. 포유류, 조류, 어류, 식물…… 우리와 함께 사는 동식물을 다룬 「자연도감」은 자연을 가르쳐 줍니다.

- 2도 인쇄/340쪽/값 4,800원